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수도복 토착화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부
부교수 조 정 미

目 次

I. 서 론	2. 수도복 디자인 개발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기본방향 설정
1. 연구범위	2) 디자인 개발 및 평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3. 수도복 디자인 제시
III. 결과 및 고찰	V. 결론 및 제언
1. 설문지 조사분석	참고문헌
1) 수도복 착용 수도회에 대한 설문지 조사분석	ABSTRACT
2) 사복 착용 수도회에 대한 설문지 조사분석	

I. 서 론

가톨릭 교회의 여성 수도자들이 착용하는 수도복은 고행, 하느님을 증거하는 표시, 하느님의 자녀됨, 가난, 그리스도의 명예 등을 의미한다.¹⁾ 수도복의 형태는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수도회가 많이 설립되던 12, 13세기 수도복의 형태를 수세기 동안 유지해 오다가 1965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도생활 쇠신 적용에 관한 교령”²⁾이 선포된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교령의 영향으로 수도복의 형태는 지역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각 수도회 고유 의 은사나 수행하는 사도적 역할에 맞추어 변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은 대부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변화된 형태인 흰색의 툴 칼라가 부착된 원피스 형태의 수도복을 머리수건과 함께 착용하고 있으며, 색상은 겨울에는 검정색, 여름에는 회색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³⁾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 속에 더욱 접근하고, 현대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일반인과 같은 차림의 사

* 이 연구는 1997년도 가톨릭 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연구 되었음

1) 이덕근, 축성 생활의 정체성-수도자의 본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바오로의 뜨락, 제76호, 살트르바로로 수도회 출판부, 1994, p8.

2) G. Pelliccia, G Rocca, Abiti Religiosi: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Roma, 1974, p.55.

3) 조정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에 관한 연구-활농 수도회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2), 1997.3, p128.

복을 착용하는 수도회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완전히 사복을 선택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사도직의 역할에 따라서 수도복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이나마 시도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원피스 스타일에서 스커트, 브라우스에 재킷을 착용한 투피스 스타일을 채택하거나 베일을 착용하지 않는 수도회들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90년대에 들어 한국의 여성 수도회들은 과거의 외국의 도움을 받던 수도회에서 탈피하여 여러 저개발 국가나 공산국가에 대한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고 외방 선교 활동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수도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얼마안가 우리의 여성 수도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활동을 벌이게 될것이 예상되며, 세계 여성 수도회 속의 한국 여성 수도자들의 위상 또한 커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 맞추어 국내 여성 수도자의 사도직 수행 영역 또한 광범위 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 근로자, 노동사목, 여성사목(미혼모, 윤락여성), 도시 빈민 사목, 탈북자 사목, 출판 홍보사목등 과거와는 달리 사도직 활동 내용이 전문적이며 진보적인 범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도직에서 현재의 단일화된 수도복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외려 거리감을 줄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도직 확대, 한국 여성 수도회의 위상 변화, 토착화 관점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도복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와 장소의 사정 및 다양한 사도직 임무 수행에 적합하고 한국 가톨릭 교회의 토착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수도복 디자인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수도생활에는 여러 양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도회의 성격을 크게 관상을 주로하는 관상수도회(Instituta quae integre ad contemplation ordinature)와 여러 가지 사도직에 종사하고 있는 수도회(Instituta varis apostolatus operibus dedita)인 사도활동 수도회(이하 활동 수도회라 칭함), 관상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사도 활동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사도적 관상 생활 수도회(이하 반 관상 수도회로 칭함)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들 수도회들은 각기 자기 수도회 창립자의 고유한 은사(Charisma)에 따라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다. 수도자 양성과정은 수도회에 따라 그 기간과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유기 서원기, 종신서원으로 이루어지며, 각 양성 단계에 따라 다른 복식을 착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도회의 특성에 따른 수도복의 연구에 보다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선 사도직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 수도회와 반관상 수도회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도복은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련기에 들어서면서 착용예식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봉헌된 자의 표지로 착용하는 복식”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해진 사도직 역할에서 지금 가장 수도복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교육, 근로자, 노동사목, 여성사복(미혼모, 윤락여성), 도시 빈민 사목, 탈북자 사목, 출판 홍보사목 등에 종사하는 수도자를 위한 수도복 디자인에 보다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복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차로 본 연구자가 수행한 수도

복에 대한 선행연구^{4,5)}와 복식디자인의 방향 설정 시 기본 필요 조건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차로 의류학 분야의 타당도를 이 분야의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3인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여성 수도자 2인이 검토하여 수도회에 현 상황에 적합치 않은 내용이나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문항의 형태는 예비조사시에는 전항목을 비자유응답식 설문(closed-response Question)⁶⁾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높이려 하였으나 몇몇 수도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유와 수도복 착용의 복합적 의미를 객관적 문항으로 설명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객관적 문항의 답변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설문지를 대폭 수정하여 문항의 성격에 따라 자유응답식 설문(open-ended question)⁷⁾ 자유응답식 질문에 약간의 응답항목을 가미한 형식(free response with some classification)⁸⁾의 문항을 혼합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한국 가톨릭 주소록에 나와있는 81곳의 여자 수도회 중 관상 수도회, 답변에 용하기를 원치 않는 수도회, 주소가 변경되어 확인 되지 않는 수도회를 제외한 총 62개의 활동 수도회와 반 관상 수도회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우편을 통하여(mail questionnaire) 실시 하였으며, 이차적으로 설문지 회수후 답변이 미비한 항목에 대해서는 허락하는 수도회에 한하여 직접 각 수도회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하여(interviewers questionnaire)의견 수렴을 하였다. 62곳의 수도회중 56곳은 유니폼 형태의 수도복을 착용하는 곳이었고, 6곳은 일반인과 같은 사복의 수도복

을 착용하는 수도회였다. 설문지 조사 및 방문 면담은 1996년 4월에서 1996년 10까지 걸쳐 실시하였다.

이외에 여성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분야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은 한국 여자 수도자 장상 연합회의 자료와, 각 분야별 수도자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⁹⁾

III. 결과 및 고찰

1. 설문지 조사 분석

1) 수도복착용 수도회에 대한 설문지 조사분석

설문지 내용은 기본문항으로 현재 수도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도직의 성격, 수도복을 착용하는 이유, 현재 수도복을 결정하게 된 동기 등을 질문하였으며, 유니폼 형태의 수도복을 착용하는 수도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수도복의 장점과 단점, 수도복 개선의 필요성,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 사도직 수행에 따른 수도복의 문제점, 수도복 지급별수, 수도복 제작 과정 및 비용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부가적 관심 사항으로 여름 수도복의 반팔 착용에 관한 문항이 첨가 되었다. 또한 사복 착용수도회에 대해서는 기본 문항이외에 사복착용이유 및 동기, 사복착용에 대한 자체 규정이나 내규의 여부, 사복착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설문지 분석은 대부분의 문항이 자유응답식이었으므로, 각 질문에 응답한 수도회의 수와 중요 응답 내용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빈도수로 정리하였다. 한

4) 조정미, 앞의책

5) 남미우, 조정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21(4), 1997.3, pp.99-110.

6) 차배근,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영사, 1995, p 375.

7) 위의책, pp.374-375.

8) 위의책 pp374-375.

9) 비공개 자료이거나 수도자들이 공개 되기를 원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음.

질문에 다양한 경우에 따른 응답이 나왔으므로 응답 수도회수와 응답내용의 빈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1) 현재 수도복을 착용하는이유 및 현재 디자인의 결정 동기

현재 수도복을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통한 면담에 의해서 조사자가 10개의 문항을 설정하고 수도회에서 자유롭게 선정하게 하였다. 10개의 문항중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를 다 선택한 수도회도 있었으며, 56곳의 수도회중 4곳은 응답하지 않았다.

<표 1>에 의하면 현재의 수도복을 착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첫째가 청빈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은 봉헌된자의 표시로서와 사도직 수행을 위해서라 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이유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수도회들이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본원에서는 사복을 입지만 한국에서는 수도복을 착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기타로 응답한 내용들은 외적인 것에 시간과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회원들의 일치 동일성을 표현하기위하여, 허례허식 채택 죄의 속죄를 위해서 특히 여름에도 노출을 삼가 합은 통회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현재 수도복의 디자인을 결정하게된 동기는 총 52개 수도회에서 응답하였는데 이중 20곳에서 사도직 수행 목적에 맞추어 디자인해서 입었고 응답하

였고, 17곳에서 설립자의 의도를 따랐다. 11곳에서 모원의 디자인에 따랐다고 응답했으며, 성모님께서 현시 하셨다는 응답이 3곳, 타 수도회의 것을 참고로 했다는 것이 1곳이 있었다. 이런 응답 내용을 볼 때 각 수도회들은 사도직 수행 목적이나 각 수도회의 영성따른 수도복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56개 수도복을 착용하는 수도회중 42곳의 수도회에서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복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도직에서 필요할때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였다. 사복이 허용되는 사도직은 교육 사도직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인솔하고 산이나 해수욕장으로 캠프나 피정을 갔을 때 활동상이나 지역 특성에 맞추기위해서와 운락가나 도시 빈민들을 위한 특수사목을 수행시 그들과 좀더 가까이 가기위해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최근들어 중공과 같은 공산권 국가에 해외선교의 소임을 하는 수도자들이 증가됨과 더불어 지역 토착화나 지역 사정에 의해서 이들의 사복착용 허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국 수녀회의 경우 외국의 모원에서는 사복착용이 일반화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수도복을 선호하는 한국적 특성에 따라

<표 1> 현재 수도복을 착용하는 이유

응답 수도회수 : 52곳

현재 수도복을 착용 하는 이유	응답빈도
1. 청빈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43
2.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 동정녀의 생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34
3. 사도직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25
4. 수도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17
5. 본 수도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15
6. 지역적 특성에 때문에	7
7. 실용적이므로	6
8. 세속인파 구분하기 위하여	3
9. 위생적이므로	1
10. 기타	4

<표 2>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사복 착용경우/응답빈도)

응답 수도회수 : 42곳

1. 사도직에서 필요시 / 69	2. 장상의 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3	3. 기타 / 5
1) 활동지역의 특성에 따라 - 산, 해수욕장에서의 캠프나 수련회 / 29	1) 병가로 집에 갈때 / 9	1) 정식 수도복 이외의 평복이 있다. / 2
2) 특수사목시 - 윤락가, 도시빈민 사복 / 25	2) 외국에서 공부시 / 2	2) 지역상황의 필요에 따라 착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다. / 1
3) 작업시-작업조건에 따라 / 10	3) 외국의 모원에서 소임시 / 2	3) 기타 / 2
4) 특수지역의 해외선교 - 공산권 국가 / 15		

사복착용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회도 있었다.

(3) 현재 착용하는 수도복의 장점과 단점

현재 착용하는 수도복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문항에는 51개 수도회에서 답변을 해주었으며, 이중 2곳의 수도회에서는 장점만을 답변하였다.

<표 3>에 의하면 현 착용하는 수도복의 장점은 청빈을 실천하고 표면적인 증거 생활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은 수도자의 본질적 요소인 정결, 청빈, 순결을 따르는 것으로서¹⁰⁾, 원피스 스타일을 사용하여 옷가지수를 줄이고 색상은 검손

과 청빈, 순명을 나타내는 검정과 회색을 주색으로 하고 정결과 순결의 표시로 흰색을 컬러 등에 대비색으로 사용하고있는 현재의 수도복이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후 채택된 후 거의 30년동안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회에서 변함없이 착용될수 있었던¹¹⁾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수도복의 단점은 수도복 자체의 단점 항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특수환경이나 상황에서 현재의 유니폼 형태의 수도복이

<표 3> 현재 착용하는 수도복의 장점(장점/응답 빈도)

응답 수도회수 : 51곳

1. 청빈의 실천 / 54	2. 표면적 증거생활에 유리 / 38	3. 기타 / 22
1) 옷에 돈이 안들고 가난한 생활의 옷이다. / 40	1) 단정하고 청스러워 보인다. / 19	1)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 14
2) 단순 소박한 수도생활에 적합 / 12	2) 표면적 증거생활이 쉽게 된다. / 9	2) 복음화에 기여한다. / 3
3) 색상이 검소하고 옷감의 질이 경제적이다. / 2	3) 자신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다. (유혹과 침해에서 보호) / 5	3) 활동이 편하다. / 2
	4) 수도자적인 징표를 사람들에게 준다. / 3	4) 여성스러워 보인다. / 1
	5) 형식을 지키는데 중요하다. / 2	5) 입고 벗기 편하다. / 1
		6) 신자들과 신부님의 기대에 맞는다. / 1

10) 황경숙, 가톨릭 수도복의 변천과 상징적인 의미,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2.

11) 조정미, 앞의책, p4281

<표 4> 현재 착용하는 수도복의 단점(단점/응답 빈도)

응답 수도회수: 49곳

1. 수도복 자체의 단점 / 61	2. 특수상황이나 환경에서의 단점 / 43	3. 기타 / 16
1) 계절에 적합치 않다. / 31 • 여름에 덥고 비위생적이다.(/ 22) • 겨울에 춥다. (/ 5) • 타인이 더 더워해 피해를 준다. (/ 4)	1) 특수상황이나 환경에서 부적합하다. / 22	1) 행동시 일반인들을 인식하게 된다. / 8
2) 머리수건이 불편하고 건강상 좋지 않다. / 21	2) 특수사목시 부적합하다. / 15	2) 토착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교유 의상과 접목 되지 못했다. / 4
3) 노동시 불편하다. / 12	3) 다른 복장으로 타인에게 거리감을 주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6	3) 타 종교의 광신도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4) 실용적이지 못하다. / 4		4) 기타 / 2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4>에 의하면 수도복 자체의 문제 점에서는 계절에 적합치 않은 문제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대부분의 응답이 여름철에 부적합하다는 내용들이 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계절에 따른 디자인의 차별없이 소재만을 변화시킨 긴팔의 수도복을 착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여름기후가 공해로 인한 고온다습한 경향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수도자들이 더위에 더욱 견디기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흥미로운 응답은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이 수도자를 보는 것 만으로도 더워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응답도 나와 과거와는 달리 세속에서 활동하면서 타인을 의식해야하는 어려움도 나타났다. 겨울철 수도복에 대한 불만은 여름철에 비해 적었는데 이는 여름과는 달리 스웨터나, 코트, 파커, 같은 것을 덧입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수환경이나 상황에서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본당사목시 성경학교나 교육사목시의 캠프 등의 경우로 어린이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을 인솔하고, 등산이나 해수욕장 등을 갔을시 수도복을 입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등산시에는 안전성의 문제도 많이 언급되었고 해수욕장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

다. 이외에도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른 윤락녀나 미혼모 사목, 중국에서와 같은 적성 국가에서의 해외 선교시 현재의 수도복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도복 착용시 어려운 점은 수도자 스스로가 일반인들을 인식하게 되어 행동이 조심스럽게 된다거나 타 종교의 맹렬신도들에게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있었고, 전통계승 측면의 토착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서구화 되어 우리옷과 접목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4) 수도복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수도복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5개 수도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는데 이중 5곳의 수도회에서는 개선의 필요를 느끼나 수도복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11곳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10곳에서는 아직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이미 상황에따라 많은 변화를 하였으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표 5>에 의하면 우선 가장 개선을 필요로하는 부분은 실용성과 기능성의 측면이었다. 다양한 사도직과 많은 노동 분량에 맞게 보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바라는 마음들이 많았고 구체적으로는 머리수건을 좀 더 단순하게하거나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표 5> 수도복의 개선 방향(개선방향/응답빈도)

응답 수도회수 : 35곳

1. 실용성과 기능성 / 42	2. 계절감각에 맞는 디자인 / 33	3. 각 수도회의 영성과 민족의 정체성 표현. / 27
1) 사도직 활동시 기능적이면서 간편하게 / 32 • 보다 간편한 디자인으로 (/ 15) • 머리수건을 좀더 간편하게 (/ 8) • 바지착용도 고려 (/ 5) • 칼라모양을 개선 (/ 4)	1) 여름수도복을 좀더 시원하게 / 27 • 반팔착용 (/ 15) • 머리수건을 개선 (/ 10) • 색상변화 (/ 2)	1) 일반인과 거리감을 갖지 않는 디자인 / 7
2) 세탁과 손질이 간편하게 / 9 • 직물을 보다 실용적으로 (/ 5) • 투피스형태로 분리 (/ 4)	2) 겨울 수도복을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게 - 색상의 변화 / 5	2) 검소하여야한다. / 7
3) 노동복을 따로 구비 / 1		3) 수도자의 품위와 각 수도회 고유의 영성을 유지 / 7
		4) 토착화된 한국 전통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 6

관심을 끈 것은 소수이지만 바지 착용을 수도복에 도입했다면 하는 응답들이었다. 사복 수도회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수도복으로 바지를 허용하는 수도회는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바지착용에 대한 관심들을 조심스럽게 보였다.

두번째로 계절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의 변화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기의 수도회들에서는 수도복은 검소함을 원칙으로하므로 옷 벌수를 늘리지 않기 위하여 사계절 동일 수도복을 착용하는 수도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현재 국내 수도회에서는 대부분이 동복과 하복의 구분은 되고있다. 하지만 여름에 아직 반팔을 착용하는 수도회가 드문 현실에서 많은 수도회들이 여름 수도복에서는 좀더 시원한 디자인을 겨울 수도복은 너무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기를 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복 개선시의 고려되어야 할 점은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응답들로 구성 될 수있다. 수도자들은 일반인과 거리감을 갖지 않는 디자인, 또한 수도자의 기본 소명인 절약과 가난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과분하지 않는 수도복,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봉헌자로서의 품위와 수도회 고유의

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원했다. 또한 한국이라는 특성하에서 민족 고유의 전통과 접목될수 있는 디자인을 원했던 데 이는 최근 가톨릭 교회에서 일고 있는 토착화 운동과 나라 전체에서 일고 있는 우리옷 입기 운동과 연관 되어 생각 되어진다.

2) 사복착용 수도회에 대한 설문지 조사분석

사복 착용 수도회의 설문지 내용은 기본 문항이외에 사복착용이유 및 동기, 사복착용에 대한 자체 규정이나 내규의 여부, 사복착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응답수도회의 수는 6곳으로 현재 사복을 착용하는 수도회로 파악된 모든 수도회에서 질문에 응해주었다.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복착용의 동기 및 이유

사복착용 동기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의 정신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세상사람들 가운데서 가까이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건강과 활동성의 이유는 한곳의 수도원에서만 언급 할 만큼 사회 심리적인 동기가 매우강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창립자의 본래 정신으로 되돌아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위해서, 획일적인 틀에 수도자를 집어넣지 않고 민중가운데 사셨던 예수의 모범에 따라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더욱 접근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수도복 착용으로 수도자를 특수 신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도자가 수도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이 중요한 것 이므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사복활동시 사복차림은 거리감을 없애고 수도자들에게 쉽게 그들이 접근할수 있게 해주었다고 응답했다.

(2) 사복 착용에 대한 규정이나 내규의 여부

대부분의 수도회가 자율에 맞긴다고 응답하였지만 수도자 스스로 사치스럽지 않고 간단하며,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곳의 수도회에서는 흰색, 곤색, 회색으로 색상은 규정한 곳이 있었다. 머리스타일은 모든 곳이 퍼머나 짧은 커트등 자유스럽게하였으며, 사복을 입더라도 수도자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반지, 목걸이, 블로치 등의 상징물을 대부분 착용하였다.

(3) 사복착용의 장점 및 단점

사복착용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소외받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다가와서 함께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가난한사람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는데 도움이된다, 수도복을 입으므로써 받게 되는 특권이나 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공 장소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외적으로 수도복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정체성을 강하게 키워 나갈수 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사복착용의 어려움으로는 아직 한국 교회나 신자들이 수도복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옷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세속적인 가치의 유혹에 노출 되며, 유행에 치우치지 않는 소박한 옷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많

이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수도복의 신비로움이 없다, 수도복을 입지 않으므로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 입회를 주저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2. 수도복 디자인 개발

1) 기본 방향설정

새로운 수도복의 디자인을 설계하기에 앞서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여러 수도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수도회 특성에따라 시각적으로 체계화 및 단일화 하기위하여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작업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기본적인 아이템과 디테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도복에서 유지 해야 할 장점과 개선해야 할 단점 및 기타 설문 조사 사항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검소하고 가난한 수도자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수도자들은 입회시 정결, 가난, 순명의 서원을 할 만큼 수도복에서 이 항목은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디자인시 소재 선택에서 실용적이고 비싸지 않은 소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이템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서로 코디네이션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표면적 증거생활에 도움이되며, 수도자의 품위를 지킨다. 수도복은 수도생활시 스스로를 외부의 유혹에서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¹²⁾으로의 품위를 가진 증거복이어야한다.

셋째, 현재 한국의 계절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는 각종 공해 현상에 의하여 이상 고온과 한파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12) 이덕근, 축성생활의 정체-수도자의 본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바오로의 드락, 제76호, 샬트르바오로수도회 출판부,1994, p.8.

환경을 고려하여 종래와는 달리 수도복의 계절별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금기시 해오던 반팔과 바지의 착용을 제시하였다.

넷째, 특수환경이나 상황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많은 교육 및 선교활동을 영성으로 하는 수도회에서 산과 바다의 수련회에서 현재 수도복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캐주얼한 쪽의 디자인도 제시하였다.

다섯째, 노동에 적합하게 활동적이면서 기능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극기의 수행과 노동생활을 사도직의 한부분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하기 적합하고 안전한 수도복이 필요하다.

여섯째, 일반인과 거리감이 없어야 한다. 많은 수도자들이 일반인과 거리감을 갖지 않는 디자인을 원했다. 특히 가난하고 윤락녀들과 같이 음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목시 현재의 수도복은 자칫 권위적으로 보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소박하고 현대인의 복장에 근접한 디자인을 설계하였다.

일곱째, 각 수도회의 영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 하여야 한다. 각 수도회의 영성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도복 전체를 단일화 하지 않고 4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수도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토착화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한복적 요소를 문양, 형태, 색상에 도입하였다.

2) 디자인 개발 및 평가

수도복 디자인의 기본 방향에 의한 세부적인 디자인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도복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인 “한국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

모양이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연구(1997)¹³⁾와 앞서 제시한 수도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서양복 스타일과 개량한복 스타일 두가지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또한 기본 아이템 구성은 투피스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바지와 반소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지 개발 및 세부 디테일 개발에 들어갔다. 우선 기본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양복 스타일의 디자인 4세트(동, 하복 한벌을 1세트로 함)와 개량 한복 스타일의 디자인을 4세트를 설정하고 전문가에 의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수도자 6(단체복 착용 수도회 수도자 3인과 사복 수도회 수도자 3인)인과 의류학관련 대학원생과 시간강사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였다.

평가복의 구성은 정장 스타일은 켈러 모양을 변형시켜 테일러드 켈러와 라운드 켈러의 형태의 2종, 캐주얼 스타일은 하의를 변형시켜 스커트 형태와 디바이디드 스커트 형태 2종으로 구성하여 서양복은 디테일 위주로 실험하였다. 개량 한복 스타일은 저고리 길이를 변형시킨 2종(등길이 25cm, 37cm)과 흰 저고리에 치마의 색상을 변형시킨 5종으로 한복의 특성상 세부적인 디테일보다는 저고리 길이와 색상의 평가에 더 중점을 두었다. 한복 치마의 색상은 천연 염색종 먹물염색(질은 회색), 오배자 철매염(질은 회보라), 괴화 철매염(질은 썩색), 일반 직물로는 고동색과 감색의 직물을 제시하였다.

착의평가 모델은 인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수도자가 모든 평가복을 착용하였다. 평가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여 각 제시된 스타일이나 색상에 대한 선호도 및 수도복에 대한 적합도의 2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각 평가자 9인의 수도복 평가 결과인 <표 6-1>과 이 표를 다시 3개의 평가 집단으로(단체복 착용 수도자, 사복 착용 수도자, 의류학 전문인)으로 분류

13) 남미우, 조경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수도복과 머리 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제 21권, 4호, 1997, 6, pp.757-768.

<표 6-1> 각 평가자의 수도복 평가표

평가자	평가항목	집단 A: 단체복착용 수도자			집단B: 사복 착용 수도자			집단C: 의류학 전문인			Total	
		A-1	A-2	A-3	B-1	B-2	B-3	C-1	C-2	C-3		
서양복	정장	테일러 선호도	3	2	1	3	4	2	3	3	3	24
		드컬러 적합도	3	2	1	4	2	2	3	4	3	24
	라운드	라운드 선호도	4	3	5	4	4	5	5	4	4	38
		라운드 적합도	4	4	5	4	5	4	4	5	5	40
	캐주얼	스커트 선호도	3	3	3	3	2	3	2	3	2	24
		스커트 적합도	3	2	3	1	2	2	2	1	2	18
디바이디드 스커트	디바이디드 선호도	5	4	4	5	5	5	5	5	5	43	
	디바이디드 적합도	3	2	3	4	4	5	5	4	5	35	
개량한복	저고리	짧은 저고리 선호도	3	3	2	3	2	2	3	2	2	22
		짧은 저고리 적합도	2	2	3	1	2	2	2	3	2	19
		긴 저고리 선호도	5	5	5	4	4	5	4	5	5	42
		긴 저고리 적합도	5	5	4	5	5	5	4	4	5	42
	치마	떡볶이 선호도	5	5	4	3	3	3	3	2	2	30
		떡볶이 적합도	4	5	4	4	4	5	2	2	2	32
		오배자 선호도	4	5	5	4	3	4	4	5	4	38
		오배자 적합도	4	4	5	4	3	4	4	4	5	37
	색상	피화 선호도	2	1	2	2	1	1	2	1	2	14
		피화 적합도	1	1	2	2	2	1	1	1	2	13
		화학염 선호도	3	3	3	4	5	5	5	5	4	37
		화학염 적합도	3	2	3	5	5	5	5	5	5	38
감색	화학염 선호도	2	2	1	3	3	3	3	3	4	24	
	화학염 적합도	3	2	2	3	2	2	1	2	3	20	

※ 평가자 각 개인당 선호도와 적합도를 5점적도(1: 매우 적합하지 않음, 5: 매우 적합함)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를 나타냄.

하여 정리한 <표 6-2>에 의하면 서양복 정장 스타일에서는 라운드 컬러 형태가 평가자 모두에게서 선호도와 적합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디바이디드 스커트 형태를 모두 선호했으나 단체복을 착용하는 수도회 수도자들의 적합

도 평가가 낮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의 디바이드 스커트에 랩(wrap)스타일의 덧천을 달아 정면에서는 스커트의 효과를 내게 하여 재평가한 결과 수도자들에게도 높은 적합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개량한복 스타일에서는 짧은 저고리보다 긴 저고리

<표 6-2> 집단별 수도복 평가표

평가자	서양복								개량한복													
	정장				캐주얼				저고리 길이				치마 색상									
	테일러 드컬러	라운드 컬러	스커트	디바이디드 스커트	짧은 저고리	긴 저고리	떡볶이	오배자	피화	화학염 고동색	화학염 감색	화학염 감색	화학염 감색									
평가자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평가자 A집단	6	6	12	13	9	8	13	8	8	7	15	14	14	13	14	13	5	4	9	8	5	7
평가자 B집단	9	8	13	13	8	5	15	13	7	5	13	15	9	13	11	11	4	5	14	15	9	7
평가자 C집단	9	10	13	14	7	5	15	14	7	7	14	13	7	6	13	13	5	4	14	15	10	6
Total	24	24	38	40	24	18	43	35	22	19	42	42	30	32	38	37	14	13	37	38	24	20

※ 평가자 A: 단체복착용 수도자, 평가자 B: 사복착용 수도자, 평가자 C: 의류학관련 전문인

에 대한 선호도나 적합도가 모두 높았다. 색상은 일반인과 사복 수도자들은 오배자 철매염과 일반 고동색 직물을 선호하고 단체복 착용 수도자들은 먹물 염색과 오배자 철매염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먹물 염색에서 보이는 회색조는 현재 수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겸손한 이미지의 색이지만 한복 스타일에 먹물 염색을 사용할 때 불교적 이미지와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먹물 염색을 사용 할 경우에는 쪽물 염색 등을 배색으로 사용하여 불교적 이미지를 최소화시킬 것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착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도복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3. 수도복 디자인 제시

(1) 디자인 A

① 대상 수도회의 영성 및 주활동 사도직

이 디자인은 각종 교육기관(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수련원, 재교육, 성소자모임, 성서모임, 출판홍보, 교구청 관계직등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교육이나 행정등 주로 지적 계층의 사도직을 많이 담당하는 활동 수도회를 위한 디자인이다.

② 디자인 개요

a. 기본 이미지 : <사진 1>과 같이 자신의 직장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아 활발하게 일하는 고학력 캐리어 우먼(career women)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수도자의 순명과 봉헌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스타일과 색상을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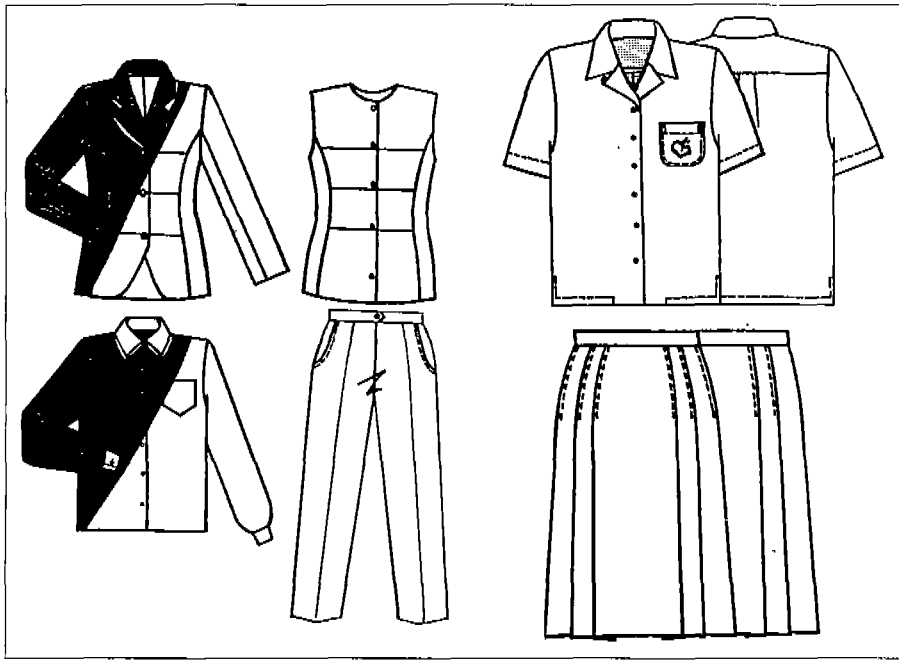
b. 아이템 : 한벌의 테일러드 슈트(tailored suit)를 기본으로 블라우스(blouse), 베스트(vest)를 조화 시켜, 동복과 춘추복으로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연출하여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하복은 단순하게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구성하였지만 동복의 아이템들과 같이 연출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다. 특히 이제 까지 수도복에 금기시 해왔던 반팔

을 도입하였으며, 바지의 착용을 제시하였다(수도회나 수도자의 의사에 따라서 바지대신 스커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초 조사 시 많은 수도회들이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옷 벌수가 늘어 나는 것을 우려하였지만 위 사도직은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대하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수도자의 품위를 유지 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타 디자인 보다 아이템 수를 늘려 좀더 격식을 갖출 수 있게 고려 하였다.

c. 디테일 : <그림 1>과 같이 동복은 프린세스 라인의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에 상황이나 수도회의 의사에 따라 바지나 인버티드 스커트(inverted skirt)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재킷은 프린세스라인(princess line)을 사용하였지만 가슴과 허리의 곡선을 펼 수 있는한 감추어 정숙성을 고려하였다. 재킷과 베스트 모두 앞중심과 프린세스라인 사이의 품판을 3개의 횡선으로 분할하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상징하게 하여 수도자들이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되새기게 고려하였다. 또한 실용성을 고려하여 이 삼등분선 하단을 포켓으로 처리하였다. 하복은 오픈



<사진 1> 디자인 A



<동복>

<하복>

<그림 1> 디자인 A 도식화

칼라의 블라우스 와 2개의 박스 플리츠(box pleats)가 있는 스커드로 구성되며 허리에는 묵주 등을 끼울수 있는 가죽벨트를 착용하게 하였다. 각 수도회를 상징하는 문양은 동복에는 금속의 뺨지로 착용하였으며, 하복은 흰색으로 상의의 포켓에 수를 놓았다.

d. 색상 및 소재 : 동복에는 검은 색(PATON Black 2U 2X)을 하복에는 옅은 회색(Paton 420 U)을 주색으로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디자인에 대비하여 수도자의 겸손함과 고난, 검소함을 부각 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도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회색이 시대에 매우 뒤 떨어진 느낌이 든다는 선행 연구 결과¹⁴⁾와 유행색상 경향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도복에서 사용되는 회색 보다는 명도를 높인 옅은 회색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비색으로 동,하복 블라우스의 칼라, 하복의 단추에 백색을 사용하여 순결과 영광을 상징하게 하였다. 소재는 동복은 모 혼방

직물을 사용하였고 하복은 면과 폴리에스터의 혼방 직물을 사용하였다.

(2) 디자인 B

① 대상 수도회의 영성 및 주활동 사도직

이 디자인은 디자인A에서와 같이 교육 사도직을 담당하는 수도자들이 산과 바다에서 수련회 지도나 학생들과의 캠프를 지도할 때나, 이외에 정신지체자나 신체 장애자 재활, 수용 사목, 불우청소년의 집, 근로자, 노동사목, 도시빈민, 윤락녀사목등 특수한 환경이나 많은 노동을 필요로하는 수도자들을 위한 디자인이다.

② 디자인 개요

a. 기본이미지 : <사진 2>와 같이 활동적이고 간편한 노동복의 캐주얼(casual)한 이미지를 위주로 하였지만 디자인A에서와 같이 보수적인 수도자의 색상을 선택하여 겸손과 가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4) 남미우,조정미, 앞의책, pp108-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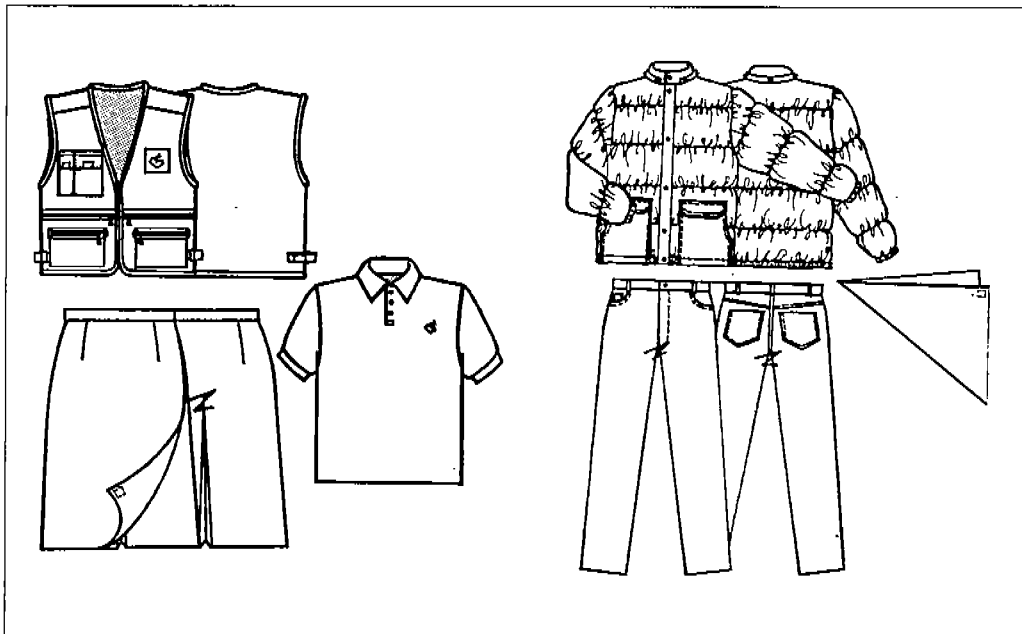
<사진 2> 디자인 B

b. 아이템 : 동복은 패딩 파커(padding parka)와 바지, 하복은 폴로 셔츠(polo shirt), 간소화된 피싱 베스트(fishing vest), 디바이디드 스커트(divided skir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이템들은 단품 이용이 가능하므로 수도회의 사정에 따라 각각을 취하여

새롭게 연출하여 착용할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백색의 폴로셔츠(polo shirt)와 같이 시장에서 싼값에 쉽게 구입할수 있는 아이템을 포함시켜 수도자들이 의복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 절약을 실천 할수 있게 하였다.

c. 디테일 : <그림 2>와 같이 동복의 패딩 파커는 스탠드 칼라(stand collar)의 점퍼 형식으로 칼라 주위에 단추를 달아 후드(hood)를 연결할수 있게 하고 두경이 있는 아우트 포켓(out pocket)을 달았다. 바지는 진 팬츠(jean pants) 스타일을 도입하였지만 여유분을 많이 주고, 바지통을 일자스타일로하여 현대적인 유행에 따른 스타일이 아닌 보수적인 노동복의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동복에는 수도회의 문양을 의상에 직접 넣지 않고 문양이 새겨진 사각 머플러의 소품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복은 상의는 세 개의 버튼이 달린 폴로 셔츠를 기본으로하고 뉘시용 보다 포켓을 간소화 시킨 피



<하복>

<동복>

<그림 2> 디자인 B 도식화

싱 베스트(fishing vest)를 착용하게 하여, 수도자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별도의 손가방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 할수 있게 하였다. 하의는 바지 형태의 변형인 디바이디드 스커트를 도입하였는데 앞쪽은 기존의 디자인에 랩(wrap)스타일의 덧천을 달아 에이라인 스커트와 같이 보이게 하여 정숙성을 강조하였다. 문양은 베스트 정면 우측 포켓과 디바이디드 스커트 덧장 하단 구석에 수를 놓아 표시 하였다.

d. 색상 및 소재 : 색상은 전통적으로 수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¹⁵⁾, 이 디자인의 캐주얼한 분위기와 어울리는의 고동색(PANTONE 4625 U)과 연한 카키색(PANTONE 452 C)을 사용하였으며, 대비색으로 앞 디자인들과 같이 흰색을 사용하였다. 소재는 동복의 패딩파커의 겉은 방수의 나일론지를 사용하였고 폴리에스터 솜을 패딩하였으며, 마지는 면 소재의 끈이 굵은 꼴텐(코듀로이: corduroy) 직물을 사용 하였다. 하복은 베스트와 스커트는 순면 평직 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플로셔즈는 피케(pique)조직의 순면 기성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디자인 C

① 대상 수도회의 영성 및 주활동 사도직

이 디자인은 민족전통을 중시하는 방인수도회나 외국에서 시작된 수도회라도 지역 토착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자들과 최근 여러 수도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보호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의지를 가진 수도자들을 위한 것으로 본당사목, 교육사도직, 군중사목, 교도소사목, 북한 귀순자 사목 등에 적합한 디자인이다.

② 디자인 개요

a. 기본이미지 : <사진 3>과 같이 전통적인 한복이 갖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한복이 가진 형태의 단순함과 색상의 소박함으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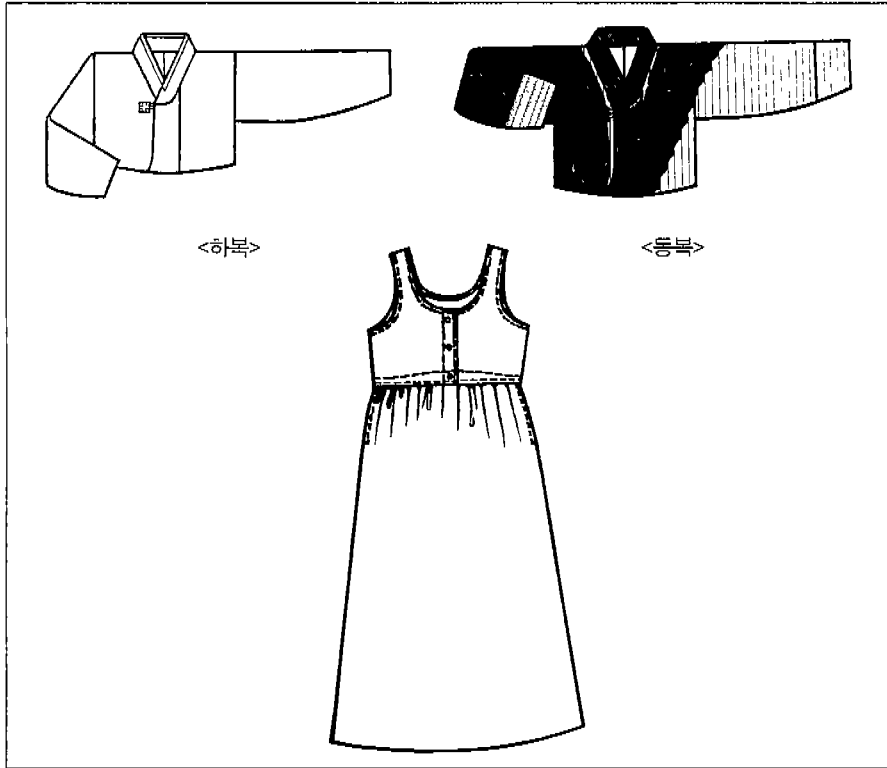
<사진 3> 디자인 C

리의 전통적인 어머니상과 기톨릭에서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잘 일치시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받치는 수도자의 이미지를 표현하려 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천연염색을 사용하여 전통색의 재현과 환경보호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b. 아이템 : 동,하복 모두 저고리와 조끼허리의 치마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디테일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을뿐 동,하복이 모두 동일 형태를 사용하였다. 반면 색깔이나 소재에 큰 변화를 주었고 연령에 따른 소재와 색상의 변화도 고려하였다.

c. 디테일 : <그림 3>과 같이 동,하복 모두 하의는 기존 한복에서 개량된 스타일인 조끼허리의 치마형태를 취했다. 상의의 길이는 신장에 따라 37cm~40cm 정도로 현재 유행하는 저고리길이보다 길게 하고 깃 폭도 5cm로하여 현재의 저고리보다 목선을 많이 감추게하여 정숙성과 단정함을 보다 강조하였다. 여밈은 고름을 없애고 모두 매듭단추로 처리하여 실용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였다. 동복의 저고리는 당코깃으로 처리하였으며, 소매는 끝동 처리를 하였다. 깃에는 바로 동정을 달지않고 깃 밑으로 동정 형태의 흰 천을 덧 대어 안에 흰 속저고리

15) 전통적으로 갈멜 수도회의 기본색인 고동색을 사용, 원래는 표백되지 않은 양모색을 의미.



<그림 3> 디자인 C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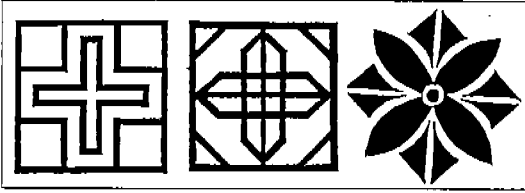
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하여 정숙함과 단정함이 돋보이게 배려하였다. 이 흰 속 칼라 형태의 덧단은 실용성과 위생성을 고려하여 따로 떼어내 세탁이 가능하게 하였다. 하복의 저고리는 동그레깃을 사용하였고 젊은 수도자의 저고리에는 깃과 셔주위에 대비색으로 파이핑을하여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었고 나이가 든 수도자의 저고리에는 깃 주위에 만 대비색으로 상침을하여 보다 침착하고 온후한 이미지를 주었다.

d. 색상 및 소재 : 하복의 저고리는 표백 되지 않은 백색인 소재를 사용하여 어떤 기교나 꾸밈이 배제된 질소(質素)한 이미지¹⁶⁾에서 겸허한 수도자의 마음을 나타내려하였다. 특히 이디자인에서는 연령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였는데, 젊은 수도자의 저고

리에는 한국 고유의 수직 면포(綿布)를 사용하여 실용적이고 정숙한 단정함을, 연령이 높은 수도자들을 위해서는 전통 모시를 사용하여 넉넉함과 시원함을 나타내주었다. 하복 통치마의 조끼허리는 노소(老小) 모두 속옷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흰색 육양목으로 제작하였고, 이와 연결된 치마부분은 젊은 수도자를 위해서는 고동색(PANTON E 4635U)의 스톤 워시(stone washing) 가공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강조하였으며, 고령자를 위해서는 오배자를 사용하여 전통 방법으로 천연염색¹⁷⁾을한 짙은 회보라색(PANTON 5195U)의 수직 면포를 사용하여 품위를 강조하였다. 동복의 저고리는 보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은 색의 혼방 모직을 폴리에스테르 솜을 사용하여 7mm 간

16) 굼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4, pp 59-61.

17) 오배자를 주염료로하여 절매염을 함. 4회반복



<그림 3-1> 십자문양과 난초문양

적으로 누벼 사용하였으며, 통치마는 조끼부분과 치마부분 모두 베이지색(PANTONE 408 U) 모 혼방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였다. 저고리의 소매는 스커트와 동일색으로 끝동 처리를 하였다.

특히 이 디자인에서는 수도회의 상징문양을 한국 전통문양의 이미지에서 도입하려 하였다.<그림 3-1>과 같이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문양¹⁸⁾을 한국 전통 문양들 중에서 추적하여 사용하였으며, 청렴 결백하며 절개를 숭상하는 군자의 기품을 나타내는 한국 고유의 난초 문양¹⁹⁾을 수도자의 품성을 표시하는 상징문양으로 도입하였다. 이 문양들은 자수처리에 적합하게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 동색 또는 대비색선에 기계자수 혹은 손수처리 하여 저고리 여밈의 매듭단추를 고정 시키기 위한 두경 부분과 뒷고대 부분에 부착 되어 각 수도회의 한국적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공하였다.

<그림 3-1> 십자문양과 난초문양

(4) 디자인 D

① 대상 수도회의 영성 및 주활동 사도직

이 디자인은 디자인 C 와 같이 전통을 중시하는 방인 수도회나 토착화를 주요시하는 수도회를 위한 디자인으로 앞서와의 차이는 행정이나 교육 보다는 보다 힘든 노동 일을 많이 해야하는 수도자들을 위한 디자인이다.

② 디자인 개요

a. 기본이미지 : <사진 4>과 같이 전통적인 한복이 갖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서의 여성 한복의 이미지 보다는 남자한복의 스타일을 많이 도입하였다. 특히 행정이나, 교육보다는농촌이나 빈민촌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목활동을 하거나 힘든 노동일을 하는 수도자들을 위하여 활동성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이면서도 소박한 수도자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하였다. 이 또한 부분적으로 천연염색을 사용하여 전통색의 재현과 환경보호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b. 아이템 : 동하복 모두 기본적으로 저고리, 말기치마, 바지로 구성하였다. 노동시에는 주로 바지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치마는 미사때나 성체조배시와 같이 보다 격식이 필요할 때 쉽게 착용할 수 있게 말기치마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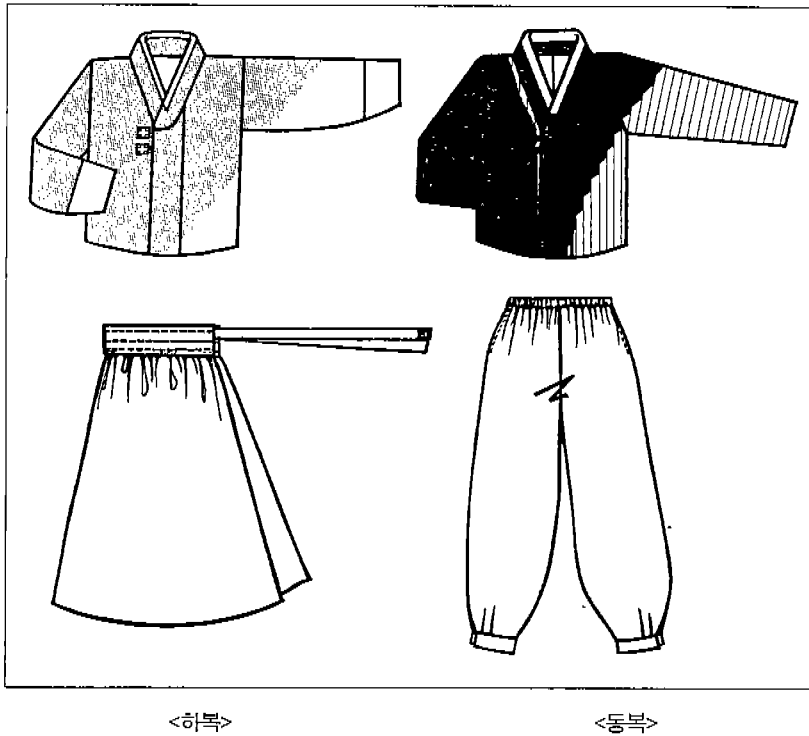
c. 디테일 : <그림 4>와 같이저고리 의 길이는 52cm~55cm로 엉덩이 부위를 어느정도 덮을수 있는 길이로 디자인 C 보다 길게 하였다. 하복의 저고리는 전통한복의 재단 방법을 따랐으며, 소매에는 착



<사진 4> 디자인 D

18)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 기하무늬, 안그래픽스,1994, 4판, pp 191-193.

19) 위의책, 꽃무늬, p184.



<그림 4> 디자인 D 도식화

탈(着脫)이 가능한 흰색의 거들지²⁰⁾를 서구식 커프스(cuffs) 형태로 달아 열악한 환경이나 험한 일속에서도 미사나 서원식등 경건한 특별 행사때 수도자의 순결, 봉헌의 마음을 표시하여 격식을 포함수 있게 하였다. 동복의 저고리는 천의 두께와 활동성을 좀 더 고려하여 소매부분은 서양식 소매인 셸인 스템(shoulder)의 재단 방식을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여밈도 하복에는 매듭단추를 사용하였으나 동복은 서양식 단추를 달았으며, 추울 때는 속에 터틀스웨터를 입을수 있게 여유분을 처리하여 외부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치마는 주름이 풍성한 말기 허리 스타일로하여 상황에 따라 노동복인 바지와 빠른 시간에 갈아 입을수 있게 하였고, 바지는 여유분을 많이 준 니커보커(Knickerbo-

ckers) 스타일²¹⁾에서 길이를 길게 한 형태로 바지끝단과 허리를 고무줄로 처리하였다.

d. 색상 및 소재 : 저고리의 색상은 한국 전통색인 쪽색의 다양한 톤에서 기본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하복의 저고리는 쪽물을 열게 들인 색인 연 하늘색(PANTONE 635 U)을 동복의 저고리는 쪽물을 짙게 들인 색인 감색(PANTON 539 U)을 화학염료²²⁾로 물을 들여 사용하였다. 하복의 저고리는 깃과 거들지 부분에 흰색을 사용하여 험한일이나 노동중에서도 단정함과 순결한 수도자세를 나타내려 하였으며, 동복의 저고리는 디자인 C 에서와 같이 7mm간격으로 솜을 넣고 누볐으며, 회색의 동정을 달아 소박함을 나타내었다. 치마와 바지는 전통적인 먹물 염색을 사용한 회색 계열로 하였다. 바지

20) 유희경, 한국 복식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1986, p.490, : 거들지란 삼회장 저고리의 부리를 단것인데 백색의 감에다 창호지를 밑 받쳐 덧대어 놓은 것으로 귀족들의 예복용이다.

21) 통정 말하는 몸매 스타일임.

는 짙은 회색(PANTONE 42 U)을 치마는 옅은 회색(PANTONE 425 U)으로 샘플을 제작하였으나 두꺼운 면포를 사용하여 계절 구분 없이 입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동하복 모두 저고리에 치마의 회색 바탕에 <그림 3-1>의 문양을 자수하여 단추 뚜껑으로 사용하거나 뺏지 처럼 가슴부위에 박음질로 부착하여 수도회나 수도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도록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 수도복의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 맞추어 여성 수도자의 사도직 확대와 위상의 변화, 한국 수도회의 정체성 확립에 따른 토착화 디자인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여러 수도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수도회 특성에 따라 시각적으로 체계화 및 단일화 하기 위하여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작업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기본적인 아이템과 디테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도복에서 유지해야 할 장점과 개선해야 할 단점 및 기타 설문 조사 사항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수도복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검소하고 가난한 수도자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실정 및 계절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한다.

셋째, 표면적인 증거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도자의 품위를 지킨다.

넷째, 각 사도직 수행에 따른 특수환경이나 상황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다섯째, 노동에 적합하게 활동적이면서 기능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일반인과 거리감이 없어야 한다.

일곱째, 각 수도회의 영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수도복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기초로 하여, 여러 수도회들의 영성과 주 활동 사도직에 따라 수도회의 특성을 4개로 분류하고, 각 특성에 따른 기본 이미지와 세부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디자인 A는 교육이나 행정, 출판 등 주로 지식 계층의 사도직을 담당하는 수도회를 위한 디자인으로 고학력 캐리어우먼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였지만은 수도자의 순명과 봉헌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스타일과 색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디자인 B는 각종 재활시설, 수용시설, 불우청소년의집, 근로자, 노동사목, 도시빈민, 윤락녀 등의 특수사목을 많이 하는 수도회나 교육 사목시 산과 바다에서 캠프를 지도하는 수도자들을 위한 수도복으로 활동적이고 간편한 노동복의 캐주얼한 이미지를 위주로 하였지만 전통적인 수도자의 색상인 고통색 계통을 사용하여 겸손과 가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디자인 C는 우리고유의 전통을 토착화 관점에서 수용하려는 수도자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전통한복의 이미지를 우리 고유의 어머니상과 더 나아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로 연결시켜 표현하려 하였다. 이 수도복은 본당이나 교육 사목과 특히 군중, 교소도, 탈복 귀순자 사목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회나 수도자들에게 적합한 디자인이다. 특히 이 디자인에서는 수도자의 이미지를 나타낼수 있는 한국 전통 문양을 도입하려 노력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한국 고유의 먹물 염색과 오메자 천연염색을 사용하여 한국 전통색을 실용화하고, 환경보호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소재를 변화시켜 젊은 수도자의 활발함과 정숙성, 어른 수도자의 넉넉함과 자애로움을 다르게 표현하려하였다. 디자인 D 역시 한복적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이지만 앞 디자인 보다는 활동적이고 많은 노동을 해야하는 수도자를 위한 수도복이다. 앞 서와는 달리 남자한복의 이미지와 속칭 몸빼스타일

의 바지를 도입하여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조 하였지만, 말기 치마와 거들지, 흰색 깃 등의 디테일을 사용하여 미사나 특별 행사시 봉헌된자의 경건함과 품위를 가질 수있게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자가 수행한 선행 연구와 수도회에 대한 설문 조사를 기초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수도자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현재 착용되고 있는 수도복의 장단점을 분류하여 이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의도가 앞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맞는 체계화된 패턴의 설계 방법의 개발과 실용적인 소재의 개발 등에 의해 저렴하고 수도자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수도복 제작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의 수행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복의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제14권, 1호, pp31-43.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4, pp.48-49.
- 김마리로사 역, 동방수도회 수도승 생활의 기원들: 코이노니아 제 7집, 1983. 가을, p8.
- 김옥희, 韓國 天主教 女性史(I), 한국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1983.
- 안상수, 한국 전통 문양집 2, 꽃무늬, 안그래픽스, 1994.
- 안상수, 한국 전통 문양집 9, 기하학무늬, 안그래픽스, 1995.
- 유희경, 한국 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p653
- 이덕근, 축성생활의 정체성-수도자의 본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마오로의 뜨락, 제76호,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출판부, 1994, p.8.
- 이주호,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6.
-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1950년대 이후 여

자 한복을 중심으로-, 복식, 15호, 1990,

- 조정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에 관한 연구-활동수도회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2호, 1997,3, p174
- 남미우, 조정미,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 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4호, 1997, 6, pp. 757-768.
- 홍나영, 한복 개량운동에 관한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15호, 1990. pp144-148.
-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85년사 편찬위원회, 바오로 뜰안의 애환 85년, 가톨릭출판사, 1973
- 황경순, 가톨릭 수도복의 변천과 상징적인 의미, 영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 2.
- H.V. 스트라렌 외, 현석호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바오로출판사, 1987.
- G. Pelliccica, GRocca, Abito Religioso: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I, Roma, 1974

ABSTRACT

A Study On Inculturated Modes of the Religious Habite for Women Religious Congreg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new design for religious habits which represent traditional Korean characters as well as proper charisms of religious congregations.

The preliminary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questionnaires. The result of this survey suggests the way how to improve the design of habits as follows :

1. The habit has to be simple according to the spirit of vowed poverty.

2.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ality of Korean culture and the climate with four seasons
3. The habit is to be of help to give witness to evangelical life and safeguard the dignity of the religious state.
4. It has to be appropriate to the environment and circumstance of apostolic mission.
5. It has to be functional and conducive to apostolic activities and labors.

6. The design has to be such as will not alienate ordinary people.

7. It should express the charism of each religious congregation as well as Korean identity.

Consequently, four types of inculturated habit design were newly developed, and actual dresses or suit have been manufactured as a part of this study.